지역 소식통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업장 방문을 하면서 군민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하여 부안군의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다"며,"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군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효과가 예측될지를 먼저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내 살림을 꾸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완성해 줄 것과 완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을 위반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으로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뿐 아니라 맡은바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친환경 생태놀이터 완성

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 내 생태공원에 어린이 생태놀이터가 만들어졌다고 1일 밝혔다.

운곡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생태공원내 3450㎡ 면적에 어린이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자전거의 동력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면서 작동하는 '현수식 모노레일', '회전시소', '수평시소', '회전놀이대' 등 자가발전 놀이시설과 트리하우스, 그네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대표 관광지인 운곡습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

정읍시,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동학-그날의 함성' '녹두장군 전봉준' 등 공연

올해로 56회째를 맞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황토현전승일에 맞춰 오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시는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기념식인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연계돼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1시 국가기념식이 기념공원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이하 기념제) 주제는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이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과 계승,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을 위해 일어났던 세계 혁명도시와 연대·협력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사적 혁명으로 위상을 높이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기념제는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를 비롯 무명동학농민군 위령제,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 등 공식행사와 함께 혁명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들로 진행된다.

먼저, 특별기획 행사로 황토현전승일, 즉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5월 11일을 기리기 위한 퍼포먼스로 정읍지역 학생들과 시립국악단원 등 511명이 펼치는 '동학- 그날의 함성'이 당일 오후 5시 기념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이 공연은 황토현 전투 당시 동학농민군의 사기를 높여주었던 재인부대(才人部隊)의 공연을 재연한다. 특히 이 퍼포먼스에는 이학수 시장과 함께 기념제에 앞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각국 참석자(아르헨티나 리마 알타그라시아 시의 마르코스 토레스 시장, 아일랜드 코크 시의 디어드레 포드 시장 등) 들이 참여, 진군 행렬을 이끌 예정이어서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 판소리 공연도 관심을 모은다. 전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인 송재영 명창이 텁텁하고 컬컬한 수리성으로 창작 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중' 긴박·치열했던 황토현 전투 대목을 실감나게 들려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와 드론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현안 해결 · 국가예산 확보위해 동분서주

노형수 고창부군수, 농촌협약 등 현안사업 반영 건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

고창군이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일 노형수 고창 부군수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여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자치단체에도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 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노형수 부군수는 "최근 지진, 태풍 등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해 원전 소재지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을 비롯해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더민주 서울 동대문구갑)과 정운천 의원(국힘 비례대표)을 차례로 면담하고, 농촌협약 등 고창군 국가예산 사업 확보를 건의했다.

특히 고창군 명사십리 해안사구 도로 정비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5월에도 전 부서 일제출장으로 통해 부처 예산안에 고창군 국가예산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일 부안 백산성지 및 백산고등학교 등 백산면 일원에서 '제129주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를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배의명 이사장)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 전라북도의원, 김슬지 전라북도의원,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용덕 천도교 종무원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장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군민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정신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백산성지 기념탑에서 부안 및 타 지역기념사업회 관계자, 군민 등이 참석해 헌화와 참배를 하였고, 이어서 백산면민과 백산고등학생, 부안농악단이 백산면 일대를 돌며 동학농민군 행군을 재연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행군 재연행사는 부안농악단의 용기행렬이 선두에 서서 군민과 학생들을 이끌고, 백산고 학생들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와 만장기, 태극기를 형상화한 소형 깃발 등을 들고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백산고등학교 야외무대에서 진행한 기념식은 식전공연, 대회사, 환영사, 축사에 이어 백산고 학생들이 직접 격문과 사대명의, 12개조 군율을 낭독하였고, 백산대회 관련 기념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백산대회를 통해 동학농민군은 혁명군으로서 조직이 전열되었고, 격문과 사대명의, 12개조 군율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정점이었다며, 부안 백산대회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포근함을 품고 돌아기시길"

정읍시, 경관농업 시범지구 유채꽃 만개

정읍시는 이평면 만석보터와 연접된 농지 6.6㏊에 경관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올해 유채꽃 만개를 이루었다.

경관농업은 농촌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살려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만석보터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도화선을 당긴 시설로 역사적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서 오는 5월 11일 제56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맞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경관농업 도입으로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자 하며, 이와 같은 경관농업단지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갈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지난 10월에 파종하여 올 봄 새싹을 틔워 드디어 꽃을 피운 유채꽃은 보는 이들에게 포근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동학농민혁명가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만석보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포근함을 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제28회 정읍시장배 시름왕선발대회 성료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후원하고 정읍시 씨름협회(회장 이형민)가 주관하는 '제28회 정읍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가 지난달 29일(토)에 정읍시 정읍체육공원 내 씨름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 씨름 동호인 80여 명이 참가하여 상호 간의 단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학생을 포함 여성 씨름인들도 다수 참여하여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는 남녀 초등부, 남녀 중등부, 남녀 고등부,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여자일반부로 나눠 토너먼트 형식으로 본선이 치러졌다,

대회 결과는 △초등저학년부 조민준, 김민아 △고학년부 박용진, 최서라 △중등부 김은호, 조혜 △고등부 김태규, 최윤진 △청년부 허혁 △중년부 김태은 △장년부 라동준 △여자일반부 김혜인 선수가 씨름왕 타이틀의 명예를 얻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동호인들 간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며 "이를 통해 씨름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년1번가 성공적 오픈… 지역 활력 높여

고창군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1번가'에 선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으며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 1번가'는 선운산 도립공원 내 고창군 최초로 문을 연 청년상점이다.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가 고창의 농산물을 활용한 땅콩빵, 청보리 미숫가루, 꽃차, 보리커피, 아이스크림, 청년들이 직접 생산한 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14일 개소 후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복분자 음료, 식혜 등 다양한 고창로컬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판매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누리 위원장을 포함한 청년1번가 입주 청년들은 고창민의 특색있는 상품과 지역축제를 겨냥한 음료 등을 개발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